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7.8 월호
1986 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충현교회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것을 보면(창 25 : 22), 사람은 본성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경기나 혹은 영화나 만화에도 서로가 싸우고 죽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

지금 이 시대를 경쟁시대라고 한다. 경쟁이란 말은 “다툼다”는 말이다. 선의의 경쟁은 발전의 동기가 되는 것 같아 좋아 보이나, 개인의 명예욕을 위해 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툼은 다투는 자도 나쁘지만 다투게 하는 자도 나쁜 것이며 결국은 피차 멸망하게 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 : 15).

아브라함은 『우리는... 서로 다투게 말자』고 그의 조카 롯에게 제의하여 다툼을 막아 화평을 도모하므로 복을 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 서로의 다툼을 막고 평화스럽게 살며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찌하여 다툼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때문에 다툼 수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 13 : 4).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곳이다. 이런 경건한 땅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입으로 다툼 수 없었고, 다투게 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건의 믿음이 약한 탓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민족복음화와 북한선교를 강조하는 것은 6천만 내 동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길만이 남북이 통일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한 골육임을 생각하여 다툼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창 13 : 8).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객지에 와서 살면서 골육끼리 다투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행위가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골육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막 3 : 35). 예수님은 이 골육의 혈맥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 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다툼 수 있겠는가? 같은 언어와 혈통을 가진 6천만 이 민족이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마당에 세계에 분열의 추태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양보하는 미덕을 보임으로 다투지 않았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 : 9). 윤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으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어 기름진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산지 헤브론으로 밀려나므로 다툼을 막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롯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았으나, 결국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심지어 아내까지 잃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마 5 : 5).

광복의 달을 맞이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한 피 받은 성도와 민족으로서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 아닌 이상 서로 양보하면서 교회와 교인간에는 서로 다투지 말고 민족적으로는 남북대치의 비극을 속히 청산하고 하나가 되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마가 달리는 나라를 이룩해 보자. *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4권 제4호
통권 제135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7.8 월호

차 례

권두언/다투지 말자.....주 간...	2
이달의 말씀/참 자유.....김창인...	4

특집 I 독 서

• 성경으로 돌아가자.....윤태곤...	6
• 성도의 독서생활.....손경수...	8

특집 II 해외여행 보고

• 보다 나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1).....이정우...	10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좌/사도신경총론Ⅳ.....임종만...	14
충현칼럼/축복의 무지개.....이응선...	16
신앙상담/중생과 성령세례, 성령충만에 관하여.....조영길...	17

독자투고

• 수필/봉숭아와 전도.....신소자...	19
• 시/나는 행복한 어릿광대입니다.....김연이...	20

추천도서

• 예식과 설교.....조현명...	21
• 기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김성윤...	22

선교지 소식.....세계선교회...	23
교회소식.....편집실...	25
교우동정.....편집실...	28
7·8월의 행사·편집후기.....편집실...	30



□ 표지 사진 설명 □

모두들 더위를 피하는 여름철에 흘린 땀방울이 알곡으로 결실되기를 소원하며 곳곳에서 열심인 여름사람들의 모습—계절학교, 하기 놓여촌전도대의 모습—을 표지로 선정해 보았다.

두손모아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의 예쁘고 착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참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 -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 1)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오늘 이 '참 자유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자유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자유란 얽매인 데가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새가 마음대로 넓고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배부르도록 먹을 수 있으면 그 새는 자유입니다. 짐승들은 넓은 평야와 높은 산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으면 짐승들의 자유일 것입니다. 사람도 아무런 억제나 탄압이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면 자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유는 종류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등을 이름을 붙이면 한없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자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몸의 자유, 민족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순서는 어느 것부터입니까

세상의 억만 가지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자유가 있는데 어느 자유를 먼저 얻어야 합니까?

첫째로, 몸보다는 양심의 자유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몸의 자유를 먼저 얻으려고 돈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해서 몸의 자유를 아무리 누려도 양심에 때가 묻고 병들면 며칠 못 가서 영육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자유부터 얻어야 합니까? 몸의

자유보다는 양심의 자유부터 얻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죄를 미워하면서 양심이 먼저 자유로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몸은 비록 고생스러운 때가 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면 몸도 자유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둘째로, 영혼의 자유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민족의 자유부터 얻어야지!” 그 말이 맞습니다. 개인이 돈을 3천억을 가져도 나라가 망하면 하루 아침에 코 한 번 풀어버리는 휴지박에 못됩니다. 민족의 자유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얻어야 할 것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큼니다. 내 영혼이 자유합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의 피에 젖어서 자유하냐는 말입니다.

♪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고 뜨겁습니다. 그러니 욕심에 젖었던 내 마음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자유를 얻습니다.

♪ 그 피가 밤 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함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예수님의 피에만 젖으면 그 피가 내 마음 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만 내놓으면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전날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멸망이 넘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에 젖은 사람은 손댈 자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할 말도 이따금 듣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세계의 전쟁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1970년 대에는 전쟁이 못 일어난다 하는 말이 그대로 맞았다. 왜? 1964년에 영국의 러셀이 한 말 그대로 만일에 전쟁만 일어나면 자유진영이고 공산진영이고 할 것 없이 이기고 지는 것도 없고 사람 한 사람도 못 남고, 짐승도 물고 기도 여덟 번 죽여도 남는 무기가 준비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무서워서 싸움을 못하고 1970년 대가 지났다. 이제 1980년 대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왜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자유 진영에서 경제발전만 하고 무기는 별로 안 만들어서 소련이 경제력은 떨어

졌지만 국방력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안심하고서 전쟁을 안 일으켰다. 그러니 소련에서 KAL기도 떨어뜨리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자유진영에서 보니까 저쪽이 국방력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떨어지니 가만 있다가는 큰일나겠다 해서 이제는 머리 좋고 경제력이 세계의 2위인 일본이 무기를 만들고 미국도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무수히 투자를 하여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니 5년이 가기 전에 소련보다 열 배나 앞설 가망이 있다.

그리하여 경제력이 앞서고 국방력이 앞서면 소련도 그때에는 꿈쩍 못하겠으니까 미국이 자기보다 앞서기 전에 일찌감치 때려 부수자 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도발행동을 각 곳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80년대는 너무도 위태로운 때다. 그러면 전쟁은 어디서 터지겠느냐? 전쟁의 시작은 한국이 되기 쉽고 전쟁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주 예수의 재림이 불원하니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쟁의 끝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유부터 얻어야 합니까? 영혼의 자유부터 얻어야 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전쟁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말이 없으니 하나님의 복만 받으면 그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지금 김 일성이 전쟁을 하고 싶어하나 언제부터 소련과 중공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고삐만 풀어놓으면 언제 터질런지 모릅니다. 지금 중공은 미국과 의논하면서 자기네가 발전해야 되겠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것도 못하고 깨어지겠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김 일성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도와주게 되면 미국에게 야단을 맞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중공은 어떻게 하든지 싸움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무회의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국회가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뚝뚝 뭉쳐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성전 짓고 선교사업하고 육신부터 살 생각은 버리고 양심과 영혼이 먼저 살면 하나님이 개인의 육신도 살려주시고 민족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에 선교사업하는 동방의 등대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순서를 바꾸지 않는 충현교회의 식구가 되게 하시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부터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 그 다음에 민족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개인소득이 만 불 넘는 날이 오면 돈도 보내주면서 선교사업도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 그날을 늘 기다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어떤 자유입니까? 영광스러운 자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민족적 자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입니다. 오늘날 내 백성이 이 순서를 모르고 개인의 자유만 부르짖으니 안타깝습니다. 충현교회의 식구들이여, 자유의 순서를 바로 압시다.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민족의 자유, 개인의 자유, 세상 떠나면 영광스러운 자유! 이 다섯 가지 자유를 다 받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충현교회의 식구와 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성경으로 돌아가자



윤 태 곤

(목사·교육연구소 부소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올바르게 받아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1.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다. 또 구원에 이르는 길과 영생에 참여하는 길을 보여준다.

2.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죄인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힘을 준다. 인간들의 악한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시키는 힘을 준다. 복음은 흑암을 광명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원동력이 된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힘써 배우고 깨달아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성경은 사람이 쓴 다른 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힘써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읽어서 내려가거나 책꽂이에 오랫동안 꽂아 두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읽고 공부하고 실천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또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성경은 도서 판매 목록 중 최고의 위치에 있고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등한히 여겨지고 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며 신자들조차 성경에 대한 지식은 거의 바닥난 상태이다. 성경은 오늘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생활방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가고 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암8:11) 든 세상이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그리스도 행세를 하며 미혹을 하고 자유주의신학, 철학, 이단 사설이 범람하더라도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끌려가는 자가 허다하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의 대다수가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이상 공부하려 하지 않으며 좀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기만 하고 그이상 깊게 알지 못한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업두도 못내고 남이 전해주는 설교나 해석에 만족하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이나 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듣고 배우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식의 중세적 사고방식

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지침이 되어야 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삶을 살므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자신도 신앙생활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교회, 신자들이 세상을 개혁해야 할 힘을 상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힘을 잃었는지 올바르게 찾아야 한다.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세의 암흑을 밝혔듯이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세지말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기에 우리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값싸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값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광부가 금맥을 찾아 파내려 가듯 땀흘리는 노동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며 남이 해놓은 결과만 즐기려고 한다면 시험공부는 하지 않고 남의 답을 보고 100점 맞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남이 가르쳐 준 것을 보는 것은 실력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가 스스로 읽고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또 스스로는 자립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은 결코 닫혀진 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세지다. 그 뜻은 대개는 분명치 않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목사나 성경학자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어야 한다. 혹은 감추어진 책이므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안일하게 성경을 대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다. 하

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설명을 기다리거나 긴 신학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다른 교인들이 느끼지 못한 이상하고 신비스런 체험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이해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만일 성경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공부를 위해 바쳐보라.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내용을 생각하고 다음에는 자신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찾아보라. 이 교훈은 그날에 행한 일에 대한 명령이나 따라야 할 모범 혹은 경고, 약속일 수 있다. 성경을 차분히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의 모든 본문을 통해서 그날의 필요하고 적절한 양식을 주신다. 성경을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대개 교인들에게 다독을 권하지만 그보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날에 적당한 분량을 정독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본문을 음미하면서 문맥과 배경을 살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장수에 밀려 서둘러 읽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점은 읽은대로 생활에 옮기는 훈련이다. 읽은 것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실천 없는 성경읽기는 무익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활과 연결되는 성경읽기를 할 때에 이 성경은 내 생활을 변화시키며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하게 된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등이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노튼 스테렛(Norton St-errett)이 쓴 「성경해석의 원리」(성서유니온간)라는 책을 참고하면 많은 유익이 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배우고 일하며 전하는 일을 힘쓸 때에 참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 교회가 될 것이다. *

성도의 독서생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손 경 수

〈제직회서기·청년부 부감〉

독서의 시기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어느 때고 기회를 만들어 읽을 수 있고, 습관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온 상식에 의하면 대개 가을(9~11월)철에 책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계절탓도 있겠지만 이때쯤 독서는 묘한 맛을 안겨주는 특수계절 탓이라.

신문과 잡지, 방송등이 가을 독서주간을 홍보하고, 심지어는 정부 기관에서도 특별 독서주간을 설정해서 기념식도 갖고 다채로운 행사도 갖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독서한다는 일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길러서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해야겠다.

특히 믿는 성도일수록 책을 많이 읽고, 차분한 생각, 심오한 사리판단, 풍부한 지식으로 복음전도의 간접 멧신저 노릇을 충실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제 몇 가지 저서를 소개하면서 독서정보에 대할까 한다.

최근 편찬된 「한국교회 설교사」(정성구목사 지음)는 목회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한국교회 1세기를 사건중심보다는 강단에서 외쳤던 메시지를 설교학적으로 정리하여 새롭게 설교패턴을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의 말처럼 「설교는 그 시대와 교회의 거울이다. 그 시대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당시의 신학과 신앙과 사회의 문제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설교사는 바로 교회사라고 할 수 있다. 동

시에 설교사는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땅에서 증거했던 진실한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다.

동 설교사엔 설교사의 필요성, 역사상 설교의 위치, 설교사의 신학분류학적 위치, 한국교회 설교사 서론등으로 총론을 엮고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인 「원두우」 「곽안련」 「마포삼열」 「왕대선」 「기일」 등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그 특징, 실체를 이해하도록 했다.

그리고 1900년부터 약 20년간에 걸친 초기 한국교회 설교중 신관, 기독교관, 성령관, 교회관 등을 평가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김장호목사의 설교 배경과 문제발단, 신신학적 설교의 문제, 그리고 김장호목사와 김익두목사의 설교논쟁이 실려있다.

길선주, 김익두, 이성봉목사의 설교방법과 설교관이 평가되었고, 김화식, 주기철, 손양원, 박형룡, 한상동 목사등의 설교를 발췌 소개하면서 그 특징등을 요약했다.

역사적 정황과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해방후의 설교의 방법과 특성, 강단의 혼돈과 설교, 해방과 자유에의 설교, 그리고 회개, 부흥을 위한 설교등으로 평가와 결론을 맺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이사장인 김준곤목사의 문설집 전 6권이 눈길을 끈다.

민족의 예수혁명론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향

기, 산예수, 산신앙, 부활신앙과 성령과 민족, 기도 최우선 전략, 그리고 은총의 승리등이다.

엮은이의 말에 의하면 「주로 젊은 지성인들에게 메시지와 성경강해로 많은 은혜를 끼쳐왔던 주옥같은 귀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술회했다.

필자는 젊은이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수 혁명, 총력전도의 특이한 언어구사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열매맺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다.

「윌터 트로비쉬」가 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남녀들에게 유익한 도서이다.

동 저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다. 또 이야기의 모든 대화가 실제로 있었음을 저자는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결혼이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규범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의의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회의를 갖는 젊은이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안네드 브리스」가 지은 「알기쉬운 성전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토픽형식으로 집필된 동 도서는 1백일만에 성경을 통독하는 이점이 있으며 교사와 어린이,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읽는 즐거움도 맛본다.

또 신구약 성경에서 각각 크게 50토픽으로 나누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체계있게 기술해 놓았으므로 성경전체의 줄거리를 다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그네스 샌포드」가 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구체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주일에배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다고는 하지만 죽기 직전에 참회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사람, 많은 신학공부를 하고도 학문적으로만 모든 신앙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 생활에 변화는 없으면서도 열심을 다한다는 사람, 그리고 평생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소망이 없고 형식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제 문학작품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본다.

단편집으로 엮은 것으로 「뿌쉬귀」 「맨스피일드」 「지이드」 「도스또옙스끼」 「스타인백」 「헤밍웨이」 「생백쥐베리」 「모파상」 등의 작품은 읽을만 하다.

동 단편집중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도 몇 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읽을수록 글의 재미, 작품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어떤 힘이 작용케 된다.

그 이외로 월간잡지, 주간신문등을 시사성있게 읽는 것도 중요하다.

교계에서 나오는 월간잡지엔 「월간목회」를 비롯하여 「신앙계」 「빛과소금」 「현대종교」 「월간고신」 「폴빛목회」 등이 있고, 주간지로는 「크리스찬」 「기독교공보」 「기독교신보」 「교회연합신문」이 있다.

화보로는 「크리스찬라이프」 「크리스찬 타임」 등이 있다.

또 교사들을 위한 「교사의 벗」 「기독교교육」 잡지등은 주교교육 일선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학전집에 나타난 이상의 「날개」를 비롯하여 그 이외 작품 심훈의 「상록수」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그리고 현진건의 「무형탑」등도 읽어 볼 만한 작품이다.

우리는 항상 시간의 공백이 있을 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느날 몇시 몇분부터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읽으려는 성급함을 버리고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자세를 늘 갖추어야 한다.

출퇴근시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행중 고속버스나 기차, 비행기 안에서도 꼭 한손에는 책을 들고 승차하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책을 손에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읽게 된다. 피곤할수록, 생각이 복잡할수록 책을 읽게되면 좋은 지혜가 떠올라 올 수 있다.

단편적인 독서정보를 통하여 책을 읽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그동안 먼지끼 책이 서재에 꽂혀있다면 이번 기회에 살며시 빼보는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자신도 모르게 즐거움이 넘칠것이다. *

특집Ⅱ

성전 건축을 위한 해외여행 보고

보다 나은 성전건축을 위하여



이 정 우

(집사·건축본부장)

먼저 우리 충현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섯 가지 목표를 허락하시고 그 중에서 성전건축 3차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차 공사의 재개와 함께 새로 개편된 건축위원회는 그동안 땀흘리신 여러분들의 값진 수고의 결과로 본당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 설계 보완작업을 마치고 내부 마감공사와 외부식공사, 종탑공사, 전기, 방송 통신 음향 설비 및 위생시설 그리고 냉난방시설에 이르기까지 옥외 조정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큰 과업을 안고 지난 4월 8일 3차 공사 착공예배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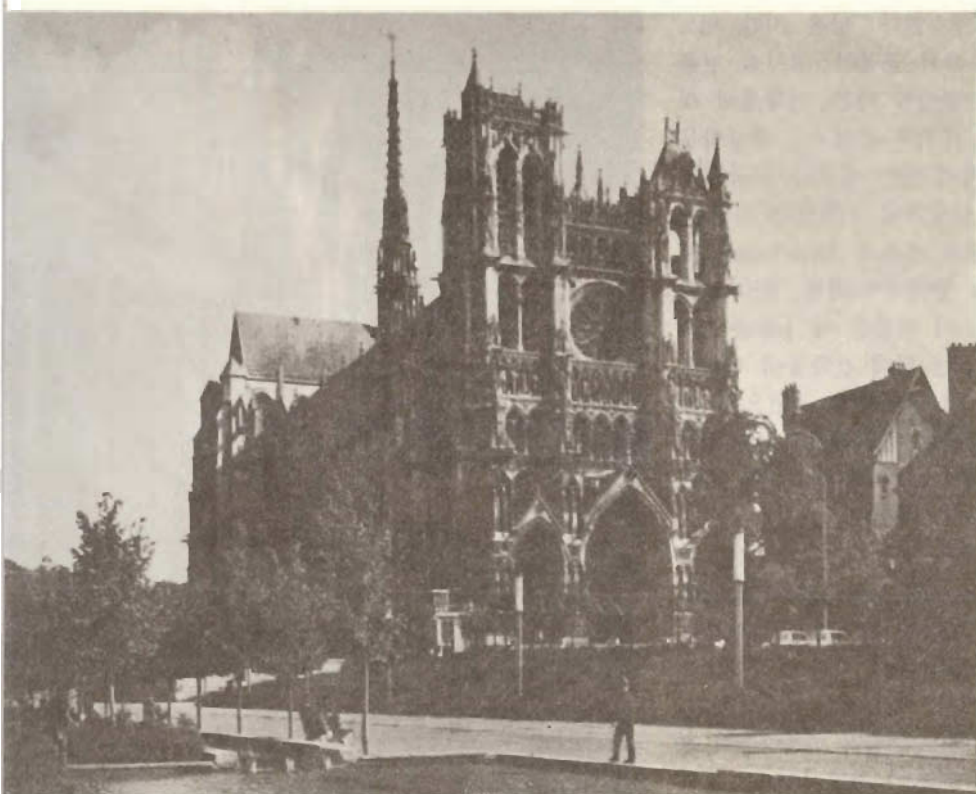
이에 건축위원회에서는 3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에 따라 건축미의 극치인 고딕식 건축의 완벽한 시공과 설계의 의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세부상세에 필요한 자료보완을 위하여 고딕식 건축의 발상지인 유럽의 현지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던 중 건축위원회와 당회에서 해외여행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석주 장로님과 기술담당으로 저와 우리교회 석공사를 맡아 수고하는 우신산업(주)의 한 상인전무가 일행이 되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이번 여행의 결과를 방문 순서에 따라서 몇 차례에 나누어 소개하고자 하오니 보다 훌륭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

처음 여행일정을 계획할 때 우선 고딕식 건축의 발상지와 전성기를 이룬 곳을 대상으로 잡았으며 또한 현재 건축물의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첫 출발지를 프랑스로 선정하였다. 이어 영국과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이태리까지를 섭렵하기로 하였다.

7월 30일 저녁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다음 날 아침 6시 40분에 파리 샤르르 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여행사에서 소개한 미스터 장이 안내자로 나와 있었다. 파리 중심가의 AROTEL HOTEL에 여장을 풀고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



아미앵 성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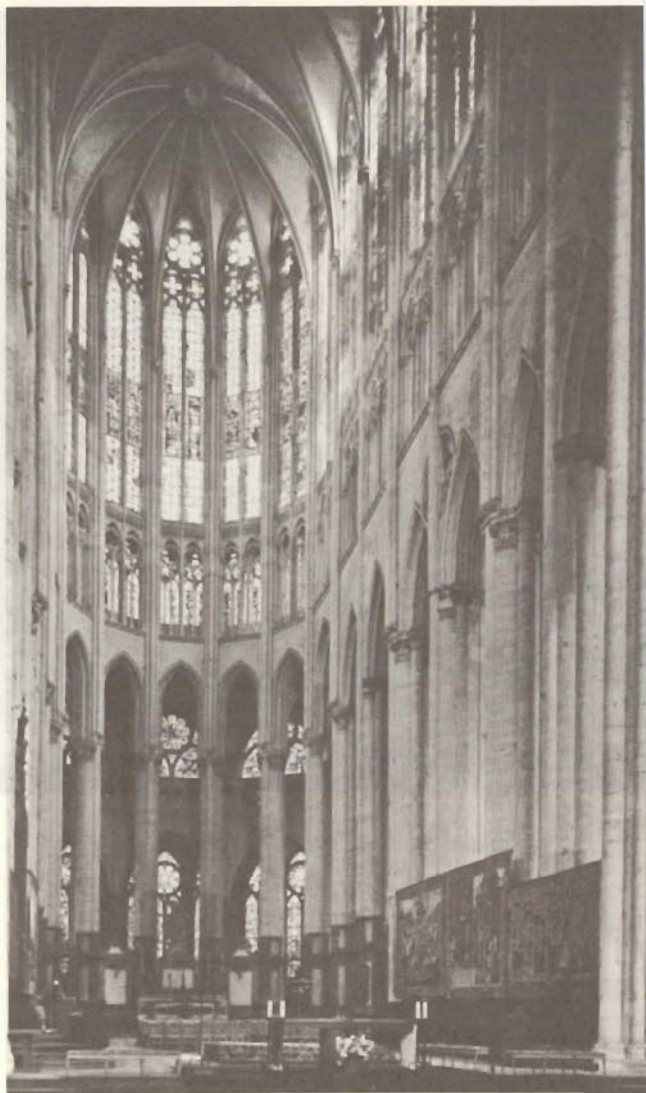
후에 안내자는 우리 일행이 피곤할 것임으로 우선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였으나 서울의 공사현장을 생각하면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바로 첫 목적지인 샤르트르(Chartres)로 향하였다. 파리 서남쪽 약 130km 떨어진 샤르트르에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Chartres Cathedral)은 1194년에 시작하여 76년만인 1260년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원래 이름은 Notre Dame de Chartres로서 Notre Dame이란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 멀리서 본 외관은 지붕이 청동색으로 쌍첨탑을 이루었는데 잠실 쫓에서 본 충현교회가 연상되었다. 도시에 진입하여 가까이 가서 보니 진입로는 옛날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전 그대로인 것 같았으며 건물 외부의 석재는 석회석 종류로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약 700년이 지난 지금은 풍화작용으로 표면이 많이 패여 골이 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규모나 당시의 표현 방법과 능력 그리고 웅장한 예술성에 새삼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고딕식의 수법을 도입한 조각과 아치처리, 차륜형 창살의 처리는 대리석 조각의 걸작품이었고 곳곳에 매달린 장식 조각은 경외감마저 느끼게 하였다.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컴컴한 내부 분위기에 돋보였다. 내부는 같은 돌을 사용하였으나 본갈기로 광을 내었으며 오랜 세월에도 잘 보존되어 있었다. 원형계단을 통하여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원형계단은 원추형의 통 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위에 까지 올라가는 동안 좁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었으며 발판과 기둥은 한 제단식 외벽까지 통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성당 지붕은 동판이고 물뚝통은 납이며 종탑의 지붕은 돌판으로 이었는데 아름다운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내부 사진을 찍으려하니 5프랑 영수증을 내었다. 큰 행사 때에만 연다는 정문과 평소엔 이용하는 협문을 뒤로 두고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여 추수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밀밭을 지나

며 파리에 도착하니 7시였다. 남은 시간 세느 강을 돌아보았다. 우리의 목적이 고딕식 건물에 대한 관찰이므로 양식이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기로 하였다. 루블박물관이 좋고 베르사이유궁전이 좋으나 도움보다는 혼란을 줄 수도 있었기에 포기했다. 대신 세느 강가에 있는 개신교 계통의 American Church를 발견하고 그 상세에서 배울 점을 찾고 VTR에 수록하였다. 이 건물은 약 100년 전에는 지은 것으로 파리에서는 현대 건축물에 속하였는데 원고딕 보다는 펍 현대화된 표현으로 고딕 스타일의 멋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함께 지녀 우리교회의 처리 방법으로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튿날 8월 1일 아침, 프랑스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걸작 노트담 사원으로 향하였다.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가까이 보니 그 규모의 웅장함과 섬세함, 치밀성이 대단함을 느꼈다. 세느 강변에서의 노트담은 아름다움의 극치였으며 후면에서의 외관이 장관이었다. 특히 지붕 상부의 철동상이 인상적이었다. 외부 보존상태는 역시 석회석의 무른 성질 때문에 풍화작용이 심한 것이 보여 안타까웠다.

현 노트담대사원은 365년에 건설된 기존 사원을 7세기경에 개축했다가 1163년 루이 7세 때에 모리스트 스트리란 신부가 대개축을 하여 그 후로 62년간의 세월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후 증축과 개수공사를 하여 1345년에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서쪽의 쌍탑 높이는 지상 67m인데 2단의 난간에는 왕의 회랑(The Gallery of King)이라는 28인의 유다 열왕상을 세워 굽적한 수평적인 액센트를 주었고 3단차에 수직 멀리온을 나열하여 이에 대칭되는 조화를 삼았다. 우측 탑에 16톤의 종을 장치하였는데 이 쌍탑의 높이는 더 높여도 종을 성 싶었다. 정면 3개의 아치열(Pointed Arch) 출입문에 새겨놓은 조각은 중앙의 것이 최후의 심판상, 좌측의 것은 Madona 상, 우측의 것은 St. Anne Bonze 상이었다. 정면 중앙의 로즈 윈도우(Rose Window)는 직경이 9.6m의 크



보베 성당 내부

기여서 시선을 끌었고 내부에서 보는 스테인드 그라스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특히 외관의 마감처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견학을 마쳤다.

3일째인 8월 2일 토요일에는 같은 방향에 있는 아미앵 성당과 보베 성당을 보고 저녁에는 영국으로 출발하여 주일을 지킬 것을 계획하였다.

아미앵 성당은 파리 북쪽 120km에 위치하며 랭스(Reims) 성당과 함께 프랑스 고딕 중에서 대표적인 건축이다. 1220년에 착공하여 1280년

에 완성되었다. 서쪽 정문의 3개 출입문은 쭉 들어가도록 설계되었고 이동심원의 Pointed Arch에다 장식한 조각은 중앙의 것이 아름다운 신 좌측의 것이 'St. Firman' 우측의 것은 '10 미덕과 악덕'을 상징하는 것이다. 쌍탑의 높이는 70m와 66m로 서로 차이가 나는데 대를 잇는 건축가의 잘못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외부의 느낌은 자유분방함을 느낄만큼 화려하였고 보존상태가 극히 좋았다. 내부의 분위기도 밝았는데 스테인드 그라스의 톤을 밝은 색으로 단순화시켜 환상적인 느낌이 들었다. 우리 교회의 3층 스테인드 그라스 처리방법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다. 그외 약간 단순화된 모든 상세(Detail)는 오히려 섬세해기가 그지없었고 바닥의 무늬처리가 돋보였다. 대리석 판에 상감한 표현의 기교가 완벽에 가까웠다. 마침 장례식이 있었는데 성당 내부의 마감을 회벽 및 석재로 하여 울림통 역할이 되었으므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파이프 울겐 소리가 적당히 울리니 효과가 좋았다. 건축음향에서 스피치 마이크와 파이프 울겐의 공존은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인 것 같았다.

아미앵 성당을 떠나 돌아 오는 길로 약 40km 떨어진 보베 성당을 찾았다.

토요일이라 모든 시가지 상점이 철시하여 기념품을 살 수도 없었다. 복받은 조상을 둔 그 후손들의 행복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보베 성당은 1247년에 시작하여 1568년에 완성되었으므로 프랑스 고딕 완성단계에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그 세미한 표현이 밝고 유쾌한 기분을 주는 건물이다. 표현마다 세심하면서도 자신에 넘치는 기법이 인상적이었으며 베드로 기념 성당답게 첨탑 꼭대기에는 금빛의 닭모형이 있었다.

지붕은 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백색빛이 났고 창은 모두 스테인드 그라스로 처리했고 이제까지 본 어느 성당보다 대형 파이프 울겐이 있었는데 그 웅장한 소리는 천상의 소리인듯 하고 1865년에 제작한 아주 정교한 대형시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계에 맞추어 타종을 한다고 한다.

주일을 영국에서 맞기 위하여 아쉬움을 남기며 저녁 7시 30분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계속)



보베 성당의 파이프 울겐

사도신경총론Ⅳ



임종만

(목사·북서울교회 시무)

I. 성부께 대한 신앙고백

1.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창 17 : 1 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

1.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마 19 : 26 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천사도 마귀도 주관하신다(히 1 : 14, 욥 1 : 12, 2 : 6). 그러므로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거든 모든 영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자연계를 지배하신다(시 107 : 25-27).

1948년 5월 14일, 나라 잃은 지 2534년 만에 독립한 작은 이스라엘이 나라의 기틀도 잡히기 전에 강한 아랍의 연합대군에게 세 번이나 공격을 받았지만 1차는 25일만에, 2차는 11일만에, 3차는 6일만에 적을 초전박살시키므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 비결이 무엇인

가를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군사전문가들을 보내어 살펴보게 했다. 그러나 10일이 걸려 조사를 했으나 이렇다 할 보고거리가 없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보아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인데 엄청나게 큰 아랍연합국을 이겼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인적자원면으로 보아 인구가 60 : 1, 그러나 1억 6천만에 비해 불과 267만 곧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수로 아랍대군을 물리쳤으니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었으며 또 군사력은 100 : 1의 차이였으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조사원중 크리스찬인 대령 한 사람이 하루만 더 조사해 보자고 한 다음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보고서야 승리의 비결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인즉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전쟁을 주관하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읍니다”고 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는 것이다.

1차전은 적진을 향해 사막의 바람이 불어 모래가 그들의 눈에 들어감으로 대승리를 할 수 있었으며 2차전은 적진을 향해 벌떼가 나타나 그들을 쏘므로 이길 수 있었으며 3차전은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므로 이겼다는 것이다. 이 사

실은 전복기의 조종사마다 전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중촬영을 했는데 사진마다 불비가 내리는 것이 찍혀 있으므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자.

2. 인간인 나는 무능하다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무능을 바로 아는 자인 것이다.

어느 날 철인 소크라테스가 혼자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문득 뱃사공을 보고서 “사공!” “예!” “당신은 철학을 공부해 보았소?”라고 뽐내며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고 대답을 했다. 소크라테스는 혀를 차면서 “철학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살아!”하고 눈을 지긋이 감아 버리는 것이었다.

배가 강 가운데쯤 왔을 때에 팔장을 끼고 배가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소크라테스를 보자 뱃사공은 그만 복수심이 일어났다. 그는 배의 노를 깊이 물에 집어넣고는 힘껏 밀어 배를 뺑 돌려 버렸다. 명상에 잠겨 앉아 있던 소크라테스는 그만 뒤로 굴러 물에 떨어지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물을 먹고 거의 죽게 된 소크라테스를 사공이 장대를 주어 잡게 했다. “손님은 해엄도 못하십니까?”라고 했다. “예 못합니다!” “쯔쯔쯔! 해엄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하고 전혀 주었다. 뱃사공은 의기양양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갔다. 와들 와들 떨고만 있던 소크라테스는 배에서 내려 언덕에서 옷을 말리면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는 덜 마른 옷을 아무렇게나 젖어 입고는 아텐 시가지를 다니면서 “인생아! 네 자신을 알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무엇이나 다 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 저것 분주하게 하느라고 짜증을 내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가르쳐 주셨다(눅10:41, 42). 그렇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비결은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무능함을 바로 깨달아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3. 회개하고 믿으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 유행된 술어가 둘 있다. 하나는 과학만능 곧 “아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황금만능 곧 “돈이면 안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류에게 유익한 점도 많지만 반면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니 어찌 만능이라 하겠는가!

또한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문화시설을 갖추어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유익한 점도 많지만 이 때문에 탐욕, 절도, 횡령, 강도, 살인 등 갖가지 범죄가 더한 것도 사실이니 어찌 황금만능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만능, 황금만능이란 말을 버리고 신앙만능 곧 “믿음이 제일이다”란 말로 고쳐야겠다. 이것은 학설 이론이 아니요 사실 그대로인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대하16:9에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셨다.

사실 능력을 받아야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능력은 전심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감리교의 어느 목사가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별명이 막대기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감독이 다시는 파송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대기 목사는 감독에게 한 번만 더 파송해 주기를 애원하였다. 감독은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하고 보냈다. 그는 파송받은 교회로 가지 않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부임하였다. 교인들은 막대기 목사의 소문을 듣고 염려하면서 출석했다. 그러나 뜻 밖에도 그 뜨거운 기도와 설교에 은혜를 받아 그 후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다고 한다. *

(다음호 계속)

축복의 무지개



이 응 선
(장로·당회서기)

우리 교회가 성전(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 벌써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건축허가가 나왔고, 관계기관과의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착공된 역삼동 새 예배당은 1,2차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제 3차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3차공사는 본당공사로써 내부공사와 외곽 돌작업, 그리고 건물위의 십자가탑공사이다.

홍화공업 건설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동 건축공사는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십자가탑 설치 완공단계 설치중 그 주위에 “축복의 무지개”가 약 20분간 나타나 건설본부·감독관, 공사인부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모든 교인들이 감격의 눈물과 기도를 올리게 했다.

비온후가 아닌 화창한 날씨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무지개출현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었고, 보는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사실 새예배당 건축기공이후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위시하여 3만명의 충현의 권속들이 주야로 매일 기도함은 물론, 물질적인 수고도 아낌없이 바쳤고, 온 정성을 쏟아 바친 기도의 예배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비신자의 곤욕스런 눈총의 시선이 있었다.

거기다가 세상인심, 이목, 말 잘하기 좋아하는 소인배들이 충현예배당 건축에 입방아를 찧어왔고, 심지어는 국내 메스컴까지도 비방, 조소, 비판, 악의에 찬 저주를 일삼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짓겠다는 일념과, 슬로몬 성전에 버금가

는 교회당을 짓기위해 눈물과 땀과 정성을 모아 완성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할 날만 기다리며 기쁘게 벽찬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괴롭고 힘든 건축공사이지만 힘주시는대로 능력주시는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현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축복의 무지개”로 우리에게 흠향하고 있다.

노아홍수 이후 다시는 이 땅에 물로 멸망치 않겠다고 하시며 보여준 그 무지개가, 약속의 상징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충현교회에 비취 줄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오늘도 교회당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충현의 권속들이 철야기도, 새벽기도, 특별집회, 찬양기도회등에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성전건축의 간절한 기도를 열납하실것이다. 또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도 허락해 주실 것도 우리는 확신한다.

이제 “축복의 무지개”는 이시대 우리들에게 부여된 큰 사명인줄 알고, 더욱 성전건축 완공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이 일에 전력 투구하는 건축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사중 좋은 날씨, 좋은 일꾼, 좋은 재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리의 무릎을 계속 꿇어야 한다.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충현교회 새예배당완공과 함께 구원의 역사와 복음전파의 대(代)를 잇게 할 것이다. *

중생과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에 関하여



조 영 길

(목사 · 교육위원장 · 6 교구담당)

■ : 중생과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생(重生, 혹은 거듭남)과 성령세례(聖靈洗禮)와 성령충만(聖靈充滿)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알고 믿고 경험하여야만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는 성령관(聖靈觀)에 대한 문제이므로 매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1. 중생(重生, Regeneration)에 대하여

중생이란 거듭난다는 뜻이다(요3:3,7).

다시 나는 것이요(Born again) 다시 한 번 더 출생하는 것이다(Born anew). 물론 성경에 나타난 문자적인 뜻은 “위에서부터 난다”는 의미이다(anoden).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다 모태에서부터 출생한다. 모태로부터 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같이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누구든지 다시 한 번 더 나아만 한다. 이같은 중생이 없이는 이 땅 위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소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요3:3~5).

이같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생은 인간의 방법으로나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요1:13,3:5).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며 성령으로 인(印)을 치시며 중생토록 해 주신다. 그러므로 중생은 우리의 영혼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시며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고 결코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의 입문이다. 이같은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이며, 즉각적인 변화이며, 잠재의식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중생한 증거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굳게 믿는 것이다(요일5:1,요1:12~13).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벧전1:3).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이 세상에 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후일에는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요일4:7)

2. 성령세례(聖靈洗禮, Baptism of the Holy spirit)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오순절과 계통에서는 중생과 성령의 세례를 별개의 것으로 보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주의의 입장은 다르다. 중생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보는 것이다. 세례(洗禮)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이다(혹은 성령세례를 불세례라고도 한다 마 3:11).

물세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들에게 목사가 물을 머리에 얹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의식적인 것이며 가시적인 것이지만 성령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으로 무의식(無儀式)적이며 비가시적인 것으로서 물세례 이전일 수도 그 후일 수도 혹은 동시일 수도 있는 것으로서 성령님의 내재(內在)로 인(印)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표시하여 구원의 보증을 하시는 작업으로서 이것 역시 일회적이며, 단회적인 것이다(엡 1:13).

이와같은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믿을 때에 최초로 받는 것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와 重生은 다 함께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인치심임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물세례는 예수님과 관계에 들어가는 기초의식이므로 그것은 또한 성령세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다(행 10:47, 11:16).

성령세례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 이차적으로 받는 것과 체험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향유하는 기초적인 체험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다(고전 12:13). 그러므로 「물세례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의식이며 성령세례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경험이다」(존 R. W. 스타트).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생과 성령세례와 물세례의 삼각 관계이다.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 보아서 큰 잘못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과 성령세례는 같은 원리이며 한 가지 사건으로 보아야 하겠다. 누구든지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분명히 중생도 하였고 성령의 세례도 받은 자이다.

3. 성령충만(聖靈充滿, Fullness of the Holy spirit)에 대하여

오늘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립에 대하여 분명치 못한 이

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중생도 물세례도 성령세례도 단회적이며 일회적인데 비하여 성령의 충만은 그렇지 않다. 충만이란 글자 그대로 계속적이며, 지향적이며, 점진적인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生水의 江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7-39)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매일 물을 마시듯이 중생한 영혼들은 매일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충만(plerow)의 문자적인 뜻은 “가득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받고 또 받아 가득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알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 있다. 성령의 충만은 눈으로도 느낌으로도 색깔로도 무게로도 잴대로 채어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이다. 오로지 성령의 충만의 문제는 얼마나 그가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지배를 받아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고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가? 그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하여 충만히 받아서(엡 5:16)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신은 죽어지고 성령님께 맡기고 지배를 당하며 사는 사람일 것이다. 이같은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으로서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죄 많은 세상을 결코 이겨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충만이 문제이다.

존 R. W. 스타트는 성령의 충만한 표시는 네 가지라고 하였다.

(1) 교제이다: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 이웃과 사랑으로 친교하게 된다.

(2) 찬송과 노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찬송생활을 즐겨워한다.

(3)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범사에 불평과 원망이 없이 감사할

뿐이다.

(4) 피차 복종하며 순종한다: 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래로 피차 복종하며 겸손한 생활을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같은 生活의 열매가 있는가를 각자가 반성하여 보자. 성령충만을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다. 성령의 세례가 보편적인 것이었듯이 성령의 충만도 그러하다.

사모하여 간구하면 누구든지 충만히 받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에게 완전히 자신들을 맡기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대로 몸도 생명도 가진 것도 모든 달란트도 제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랄 뿐이다.

*



“봉숭아와 전도”

신 소 자 집사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달 여름철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나라를 빼앗긴 한민족의 슬픔을 대변해 주던 노래로 널리 알려진 우리의 애창곡, 지금 그 봉숭아는 어디에 피어나고 있을까? 세월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봉숭아가 피어날 자리는 너무 많이 좁혀져 있는 것 같다. 어쩌다 시골엘 가도 봉숭아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봉숭아꽃을 전해 받았다. 손톱에 물들이라고 준 것인데 즐기며 꺾어 온 것이 너무 앙증스러워서 흰 수반에 꽃꽂이를 했다. 식탁 위에 놓고는 자꾸만 바라보고 있자니 유년주일학교때 배웠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담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그 누가 날마다 키우시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날마다 키우신다.

별이 총총하고 북두칠성이 뚜렷한 국자 모양을 그리던 시원한 여름밤 이웃의 또래들과, 어울려 피마자임을 따다가 백반과 소금을 넣고 봉숭아잎과 꽃을 찢어 손톱에 올려 놓고 피마자임으로 잘 싸맨 후 두손을 양전히 배 위에 올려 놓고 잠들었으나 아침에 깨어 보면 더러는 그토록 찡찡 몇겹설로 동어매 놓았는데도 빠져 달아난 것도 있었지.

세월이 많이 변했어도 봉숭아 꽃물을 이웃에 사는 어린아이들과 나누어 들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손톱에 들여진 꽃물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나 엄마들도 있을 수 있겠지.

사랑과 깨끗한 정이 있는 전도를 하는거다. 어린이에게 전도를.

마가복음 10장 13절을 생각한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리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

나는 행복한 어릿광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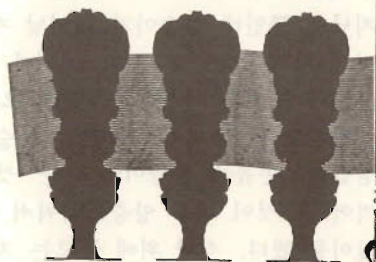
김 연 이

(전도사 · 유년부지도)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가슴 칠 줄 모르는
표정없는 저자거리
얼굴에 흰분 바르고
북하나 메고
손짓 발짓하는
나는 숙명적인 어릿광대입니다.

싸늘해진 핏기 없는 얼굴들
무관심하다 못해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마음 마음 마음들
어릿광대의 몸짓에도
웃을 줄을 모르는구나
나의 마음은 저러오는데
나는 슬프다 못해 비참해진 어릿광대입니다.

저자 모퉁이
햇빛도 가리워진 응달진 곳
소박한 눈망울이
나의 몸짓에 화안한 소망의 꽃을 피웠네
나의 행복은 너의 웃음에 있는데
온 종일이라도 너를 위해 북을 치리라
아! 나는 행복한 어릿광대입니다.





예식과 설교

김창인목사 저작 전집
설교집 제6권
충현교회 출판부

조 현 명
(장로 · 출판국장)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예식이 있다. 이 예식을 바로 집례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도가 되고, 예식을 받는 본인에게도 더욱 큰 축복이 되므로 예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 책은 가정예식, 교회예식, 기타예식 3편으로 되어 있으며, 형식면만을 취한 요약설교가 아니라 예식 진행 전에 철저하게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시작하는 일과 또한 예식을 마친 후에도 성의를 다하여 분명한 마무리를 하는 주례자세로 감동을 주는 김 창인 목사님의 예식 주례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 축복과 위로가 넘치는 진행이 특징이라 하겠다.

평생을 그의 목회 현장에서 다듬어 온 예식

방법론과 설교를 체계를 세워 교계에 내놓게 된 은 교역자들에게 귀한 보배가 될 것이며, 주례자로서 손색이 없는 품위를 갖추는 데 올바른 교과서가 될 줄 믿는다. 이 책은 각 예식의 의의와 식순과 거기에 맞는 설교와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었으므로 우리 교계의 예식이 이 땅에 정착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 기쁨은 곧 우리 온 교인의 기쁨일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일생 전반에 걸친 것이므로 항상 옆에 두고 읽어 내용을 바로 알고 예식에 참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 자신은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추천하고자 한다. *

김창인목사 저서목록

설교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400면	5,000원
칭찬 듣는 교회	423면	5,000원
절기 설교집	456면	5,800원
예식과 설교	516면	6,000원
시가서 설교집	388면	4,600원

직분자 교육용 교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	205면	2,200원
--------------------	------	--------

평신도를 위한 말씀시리즈

■ 교회란 무엇인가	87면	700원
■ 서로 사랑하자	70면	700원
■ 성도의 시험	70면	700원
■ 선교란 무엇인가	68면	700원
■ 성도의 가정	87면	700원

근간 발행예정

1. 「이사야서 강해(1)」
2. 「복음서 설교집」
3. 「바울서신 설교집」

기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SPIRITUAL MATURITY)

J. 오스왈드 샌더스 지음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므로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중생한)사람은 이제 영적 갓난아이에 불과하며 그는 점점 자라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양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뢰, 순종의 삶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혹은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신자가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성숙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을 종종 본다. 성경은 이러한 실패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 책의 내용들은 모든 계층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동행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열망을 만족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책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로부터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깊은 경험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제 1부 성부 하나님, 제 2부 성자 하나님, 제 3부 성령 하나님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분

별력있는 훈련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시험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힘있게 하시는 약속에 의하여 겸손케 될 것이다.

둘째 부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 그의 숭고한 생애와 죽음의 승리,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된다. 또한 제자도(弟子道)에 대한 주님의 엄격한 조건을 듣게 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다스리는 삶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보게 된다.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능력, 깨끗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활동, 그의 저항할 수 없는 힘과 설교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데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더불어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본서의 저자인 J. 오스왈드 샌더스는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의 고문이며 특히 뉴기니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훈련대학의 학장으로서 그동안 영적성장에 관한 여러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성서수양회와 각종 집회의 강사로 수고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앞에 남김없이 굴복하는 삶이다. 바라는 본서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추천하고자 한다. *

추천/김성운
(강도사·소년부 지도)

선교지 소식

공동 기도제목

1.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며,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
2. 선교교회의 안정과 부흥발전 및 선교사역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3. 현지인의 복음화와 개척교회의 설립 및 현지인 사역자의 훈련과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약 1개월동안 선교 협력교회 및 본교회 설교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미국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7월 18일 입지로 출국.
- 현재 3개의 법인체와 새로 설립한 기독교 대학교를 통하여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글 오지에 49개 교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신자 수가 늘고 있음.
- 내년 7,8월에 수고할 단기 사역자를 원하고 있음.

일본(유병세 선교사)

- 히로오 교회, 호로이즈미 교회 등에서 예배 인도와 병원, 교포, 노방전도 등 수시로 실시.
- 이윤호 권사가 부인 성경반과 아울러 대한 부인회 모임에서도 복음 증거할 기회 주심을 감사.
- 기증도서 보내 주심을 감사.

인도(엘리아 잼간 선교사)

- 고산지대의 전도 및 의료사업을 위하여 기도 부탁.

- 카길과 물백마을의 개발사업과 재건 사업을 위하여 기도 부탁.
- 장스카르 마을에 복음 및 의료를 위한 동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
- 새로운 사업의 등록이 내부부에 진행 중에 있음(물백에서 시작하려는 사업).

애굽(이준교 선교사)

- 7월 15일 이준교 선교사 사모와 장남 석신군이 건강진단 및 치료차 입국.
- 7월 20일 세계 선교회 정기 월례회시 인사와 더불어 애굽 선교지 현황 보고.
- 8월 10일 사모와 석신군이 소년부 방문하여 애굽의 선교 사업 및 보고.
- 8월 12일 건강진단 및 치료를 마치고 현지로 출국.
- 애굽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여 날마다 물가가 폭등하는데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 부탁함.

이스라엘(김주경 선교사)

- 7월 20일 월례회시 귀국인사 및 선교지 현황보고.

- 7월 20일~8월 3일 선교협력교회에서 설교 및 슬라이드 상영.

- 8월 5일 모든 업무를 마치고 성지 특별 세미나 인도차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국.
- 성지 연구소 운영을 위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

서독(육호기 선교사)

- 어학 공부를 하면서도 빅츠부룩, 하나의 한인교회 목회와 아울러 현지인 및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을 위한 복음 전도 계속중.
- 이태리 베에몬트 지역의 수도인 토리노 성당에 보관된 예수님의 수의를 복사하여 보내움.
- 선교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도서와 비디오 테이프 요청.

서독(김성주 목사)

- 비스바덴교회 목회 담당. 마인쯔 대학어학과정 이수중.
- 독일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아울러 월 200마르크씩 애굽개척교회에 보내고 있으며 선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함.

벨기에 (김성완 선교사)

- 브뤼셀 한인 선교교회, 안트워단 선원선교교회, 로텔담 선원 선교교회 등에서 목회 및 성례식 거행하여 새로운 결실을 보고 있음.
- 장로 장립(박주석장로)을 감사하여 '포토 카피 머신'(3,000불)을 바침을 감사.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 7월 13일 아순시온 교회의 헌당식 거행.
- 7월 15일 막내딸 성미양 결혼식.
- 미국 개혁 장로회 신학교 중남미 분교장 수락(노회결의, 총회인준).
- 8월 12일~15일 조천일 목사를 강사로 부흥 성회 개최.
- 오는 87년도에 함께 동역할 부목사 한 분을 요청.

칠레 (유재일 선교사)

- 한인 교회와 원주민 선교사업 담당.
- 홍수로 인하여 수재민이 생기고 식수난으로 고생이 심함. 위하여 기도 부탁.
- 유재일 선교사 자당 되는 김천옥 권사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6월 28일 입국) 9월 하순경 출국 예정.

텔사 (강성진 목사)

- 한국 교민의 복음화를 위한 문서전도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개설을 위한 준비중(장소 구입을 위해 기도 바람).
- 도서관 개설을 위한 바자회를 1,2차로 나누어 9월과 11월에 가질 계획임.
- 전도 여행을 통한 전도의 결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요망.

충현 선교자료를 찾습니다

충현선교 18년 정리에 도움되고 의의를 갖게 될 각종 자료를 찾습니다.

초창기인 1968년 이후 본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일화들, 문서기록과 사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협조해 주십시오. 자료의 원본은 다시 반환해 드립니다.

1986년 9월
충현세계선교회

뉴욕 (박종만 목사)

- 7월 20일 세계 선교회 정기 월례회시 귀국 인사 및 뉴욕 충현교회 현황 소개.
- 7월 26일 선교 협력교회 방문 및 성도들의 교제와 업무를 마친후 임시로 출국함.
- 귀국시 베를린 성도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문안 보내움.
- 사모가 8월 23일 친정 어머니의 노환으로 일시 귀국.

홍콩 (오치용 목사)

- 선교업무 및 선교 보고차 가족과 함께 일시 귀국.
- 8월 10일 주일 대예배 및 저녁예배 설교 담당.
- 8월 11, 12일 양일간 시내산(북한 선교원)방문하여 축도및 철야 예배 인도.
- 8월 12, 13일 선교 협력교회(광천교회) 수련회 인도.
- 8월 16일 태국 항공편으로 임지로 떠남.

<본부 소식>

- 7월 22일 뉴욕 충현교회 박종만목사를 모시고 미주 선교국 실행위원들과 함께 식사 및 성도의 교제 나눔.
- 7월 24일 각 선교지에 도서 및 물품 구입.
- 7월 28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약 3개월 대리 근무 했던 윤태근목사 귀국.
- 7월 29일 애굽 김수련 사모와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를 모시고 중동·아프리카 선교국 실행위원들과 함께 식사 및 교제 나눔.
- 8월 8일 홍콩 충현교회 오치용 선교사를 모시고 공산권 선교국 실행위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눔.
- 8월 9일 애굽 선교지에 보낼 도서 및 물품 구입.
- 8월 14일 충현 선교교회의 정상우목사가 충현 세계 선교회 앞으로 문안의 편지 보내움.



교회소식



■ **당회장 김창인목사 세계 C·E대회에서 설교**
제20차 세계 기독교청장년(C·E) 대회가 “세상에 참 빛되신 예수님”(요 8:12)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난 8월 6일(수)부터 9일(토)까지 장충실내체육관과 장충교회에서 한국 C·E연합회와 세계 C·E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한편 이번 대회의 명예대회장인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둘째날 저녁에 약 4,000명의 성도와 각국의 C·E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임스 헤론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마 11:25~30)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맥추 감사예배**
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주) 저녁예배를 맥추 감사예배로 드렸다.

임필성장로(영아부 부장)의 사회로 이날 예배에서 윤용규목사는 “오순절 성령과 초대교

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편 특별순서로 영아부 아가들의 맥추감사의 순서도 있었다.

■ 8·15해방 구국성회

8·15해방 구국대성회가 북한 선교원 주최로 지난 8월 11일(월)부터 16일(토)아침까지 시내산 기도원에서 열렸다.

새째날 저녁부흥회에서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요 8:31~36)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장로 수양회

본교회 장로들의 신앙성장과 친의를 다지는 장로 수양회가 신성종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지난 7월 16일(목)부터 18일(금)까지 충현수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수양회에는 공로, 명예, 협동, 시무장로 등 본교회 모든 장로들이 함께 참석하여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86년도 제3차 성례식**
1986년도 제3차 성례식(학습

·세례·유세·입교·개종) 문답이 지난 6월 19일(목) 20일(금) 양일간 있었다.

세례식은 20일(금) 오후 2시 유아세례식과 오후 7시 장년세례식 2차례가 있었고 성례식 문답자는 학습 79명, 세례 101명, 유아세례 41명, 입교 16명, 개종 2명 등 총 239명이다.

한편 성찬식은 6월 22일(주) 5부에 걸쳐 거행되었고 수찬자수는 총 5,214명이었다.

■ 청년부 특강

청년부에서는 지난 6월 22일(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412호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영훈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 중등부 작은 음악회

중등부에서는 지난 6월 28일(토) 오후 4시 30분에 비디오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기악 순서와 독창, 중창, 합창의 순서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발표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대학부 학생발표회

대학부에서는 지난 6월 29일(주)에 “개혁주의 신앙과 한국의 종교교육”이란 주제로 학생 발표회가 있었다.

■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 종합우승

총회신학대학교가 주최한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본교회는 중등부 1등, 고등부 3등, 중창부문 3등을 차지하여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 새가정부 특강

새가정부에서는 7월 20일(주)

12시 새가정부실에서 “새가정의 경제설계”라는 주제로 윤주현집사의 특강이 있었다.

■ 여름계절학교

교육위원회 산하 13부 주일학교의 86년도 여름계절학교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두 끝났다.

이번 계절학교에서는 교사 542명, 학생 3,432명 등 3,974명이 참석하여 약 89.2%의 참석률을 나타냈다.

각 주일학교별 계절학교 실시결과를 다음 도표와 같다.



1986년 계절학교(여름) 실시결과 개요보고서

교육위원회

1986. 8.

구분 부별	행 사 명	주 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실시기간	실시장소	강 사	참 가 인 원(명)			
								교 사	학 생	계	%
1. 영아부	제23회 여름계절학교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고전 13: 7	사람은 사람은	86. 8. 12-13	선 102호 선 103호	김 창 인 정 소 영	32	(289) 369	(690) 401	88.1
2. 유치부	제33회 여름계절학교	사랑의 예수님	요 15: 12	사 람	7. 21-23	선 101호 선 107호 선 205호	김언이, 양은순 정연희, 김정자	67	(122) 388	(577) 455	85.7
3. 유년부	제33회 여름계절학교	즐거움 교회생활	골 3: 15	246 장	7. 21-23	교 212호	정 연 희 김 연 이	68	398	466	98.7
4. 초등부	제33회 여름계절학교	청지기로서 사는 교회 어린이	요 13: 15	514 장	7. 21-23	교 314호	남 창 우	53	379	432	91.7
5. 소년부	제33회 여름계절학교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가 되자	빌 2: 5	507 장	7. 21-23	교 307호	김 성 윤	58	356	414	87.9
6. 중등부	제24회 여름수양회	훈련된 성도가 되자	요 20: 31	210 장	7. 22-25	북한선교 훈련원	김 오 용 김 이 원 길	82	436	518	111.9
7. 고등부	제24회 여름수양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 17	88 장	7. 28-31	충현기도원	허 중 욱 김 익 이	38	218	256	108.5
8. 대학부	제17회 여름수양회	주님이 쓰시는 그 뜻이 되게 하소서	딤후 2: 21	302 장	7. 7-10	충현기도원	윤 용 규	15	90	105	89.0
9. 청년부	제16회 여름수양회	자신을 확증하라	골 2: 6-7	415 장	7. 16-19	충현기도원	윤 형 철 김 집 장	5	121	126	79.3
10. 장년2부	제3회 여름수양회	자신을 의의 뿌리로 하나님께 드리자	롬 6: 13	506 장	7. 16-17	북한선교 훈련원	이 성 근	24	140	164	72.3
11. 장년1부	제8회 여름수양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 6: 3	506 장	8. 19-20	교 307호	윤 매 곤	41	198	239	74.7
12. 소망부	제11회 여름수양회	성도의 가가길	딤후 3: 17	434 장	8. 22-23	교 107호	조 영 길	37	248	285	104.4
13. 직전부	제10회 여름수양회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요일 3: 1	485 장	7. 31-8. 2	충현기도원	김 동 렬 장 혜 순	22	91	113	64.2
14. 계								542	(411) 3,432	(4,385) 3,974	89.2

■ 모범 전도자 시상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주) 저녁 예배시에 모범 전도자에 대한 전도시상식을 가졌다.

1. 주일학교 모범 전도자

금상; 나유리 김유석 오금녀 최보경 방승기 유승찬 이

동명 최 순 홍승선 김선옥 은상; 김은하 채송아 이선영 이미영

2. 장년 모범 전도자

금상; 조계진권사 진정례권사 박부미권찰 장기옥권사 장애희권사 정인자집사 이관호성도 김부덕권찰 김순자성도

박윤석집사

은상; 구명신전도사 김영구 집사 정봉조권사 광경숙사모 박상준집사 정순자집사 표복자권찰 박순규권사 김정애집사 차용순집사 이복음집사 민병환성도 김옥순권사 최정숙권사 이승자권사 오정화집사

윤금숙권철 구현숙성도 민옥
순성도 오채련성도 박귀순권
철 은필레권철 김옥순권사

■ 하기 농어촌 전도

'86년도 하기 농어촌 전도대
교육이 7월 26일(토) 오후 4시
에 선교관 304호에서 있었고 8
월 3일 저녁에배시에는 하기 전
도대원 파송식이 있었다.

1차 6대, 2차 5대로 나뉘어
파송된 이번 전도대 조직은 다
음과 같다.

* 각 전도대 조직표

순번	교 회	소재지	파송기간	강 사	전도대원
1	만제교회	충 북 영 동	(1차) 86. 8.4-8.8	김영구 목 사	11명
2	천곡교회	강 원 영 월	"	김창근 목 사	7명
3	방주교회	경 남 충 무	"	한영철 목 사	9명
4	기 아 도 교 회	충 남 서 산	86. 7.28- 8.1	박상영 전도사	10명
5	부산지역 병원전도	부 산	86. 8.4-8.8	인술자 남창우 전도사	15명
6	용산교회	강 원 정 선	"	이상현 전도사	7명
7	신현교회	강 원 정 선	(2차) 86. 8.18- 8.22	김동열 목 사	9명
8	서현교회	강 원 인 제	"	이양우 목 사	7명
9	철성교회	강 원 삼 직	"	이세영 목 사	7명
10	미산교회	강 원 평 창	"	이원길 목 사	9명
11	대 백 중앙교회	강 원 대 백	"	김익경 목 사	7명

■ 70인 전도요원 수료자 재교육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70
인 전도요원(1기~7기) 수료자



재교육이 지난 7월 7일(월) 오
후 2시 교육관 212호에서 있었
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농어촌 전
도대원을 지원 받기도 하였다.

■ 여전도회 하기 수련회

한나·에스더 여전도회는 연
합으로 '86년도 하기 수련회를
7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
지 열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자"라는 주
제로 신성종목사를 강사로 모
시고 연인원 2,700명이 참석하
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제 2 차 전도특공대 지 도자 훈련

제 2 차 전도특공대 지도자 훈
련이 북한선교원 주최로 7월 7
일(월)부터 12일(토)까지 시내
산 기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55개 신학교에서 1,211
명이 참석한 이번 훈련은 새벽
기도회, 체조 및 구보, 성경공
부, 각종 특강 및 저녁부흥집
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육사·해사 기독교생도 신앙훈련

충현수양관에서는 북한선교
원 후원으로 육군사관학교와 해
군사관학교 기독교생도 하기 수
련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7월 5일(토)부터 7월 8
일(화)까지 "주 안에서 거하라"
(요 15:5)는 주제로 열렸다. 육
사 기독교생도 하기수련회에는 80
명의 기독교생도가 참석하였다.

한편 해사 기독교생도 하기 수
련회는 7월 23일(수)부터 25
일(금)까지 이광현목사(해사 담
임목사)의 생도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김창인목사 설교집 발 행

출판국(국장 : 조현명장로)에
서는 지난 7월 20일에 당회장
김창인목사 저작전집 제4권「시
가서 설교집」을 발행하였다. 또
한 제6권「예식과 설교」를 7
월 30일에 발행하였다.

교 우 동 정

새 교 우

역삼구역	오정민	성남구역	최광석	신당구역	오정애	안성구역	이윤재	성남구역	이양순
역삼구역	허남철	역삼구역	김순남	신당구역	염애결	한남구역	정명순	개포구역	명숙희
논현구역	김순자	논현구역	박옥자	역삼구역	김영선	대현구역	이성순	대림구역	이성수
노량진	김재성	개포구역	박정희	남양주구역	송미숙	둔촌구역	오임걸	답십리구역	이순신
창천구역	문광석	노량진구역	서인모	성남구역	조규상	논현구역	윤이임	필동구역	신미예
수유구역	박종진	노량진구역	신대식	역삼구역	김은경	대치구역	이병태	역삼구역	박부선
남양주	박순덕	불천구역	최진예	홍익구역	지영도	홍은구역	조은희	청담구역	송보안
송정구역	오순화	신사구역	이순희	논현구역	주경희	개포구역	김희정	중화구역	박미자
오창구역	노춘만	상도구역	이상순	미아구역	신유순	봉천구역	진철호	용답구역	황영자
성남구역	박미향	신현대구역	박정미	논현구역	이상학	논현구역	이호순	성남구역	고용순
역삼구역	박금옥	활학구역	권은경	수원구역	정의한	한강구역	김재필	부천구역	김정자
개포구역	김무일	오창구역	박봉래	역삼구역	홍영휘	초동구역	전무순	답십리구역	탁동철
반포구역	정성희	암사구역	윤경희	용답구역	이형연	한남구역	최지혜	한남구역	박해경
역촌구역	김영목	목정구역	문정자	가락구역	김해경	대현구역	고승환	신당구역	위정자
보문구역	박영목	송파구역	송신옥	사당구역	김정란	둔촌구역	김경혜	신당구역	강영란
면목구역	윤정자	신당구역	허미양	신교구역	백영호	사당구역	강혜영	삼전구역	이영숙
송정구역	오순자	잠실본동	정광원	대치구역	윤은주	홍은구역	정영현	수원구역	강석재
장충구역	정문영	역삼구역	백 종	본동구역	박은선	삼수구역	김은수	역삼구역	오철민
역삼구역	정호순	신사구역	최승희	역삼구역	이순심	불천구역	김동욱	중계구역	서영자
역삼구역	장주옥	필동구역	김길순	행당구역	김정환	불천구역	김영미	장충구역	이흥춘
논현구역	임미영	논현구역	김규태	역삼구역	최종시	역삼구역	유선옥	신정구역	나영수
반포구역	박영남	시흥 4 구역	이수녀	파천구역	최승운	장충구역	양재영	역삼구역	송매숙
홍은구역	주정희	성수 2 구역	서길순	신림구역	김호성	한남구역	정 술	역삼구역	연양원
삼계구역	신문자	역삼구역	최정단	잠원구역	유홍준	용두구역	김명숙	이태원구역	김종범
잠실구역	최상오	공덕구역	양수경	잠실구역	조양욱	자일구역	김종철	대치구역	이옥분
한남구역	장민호	수색구역	박태숙	암사구역	임민숙	방배구역	최영태	미아구역	서익성
역삼구역	장봉희	논현구역	위성혜	창신구역	임옥희	황학구역	나승자	구의구역	심혜숙
대치구역	장영순	역삼구역	유정진	역삼구역	박복순	회기구역	박정희	역삼구역	오봉식
대치구역	홍성희	부천구역	이순년	논현구역	이은하	논현구역	김정규	개포구역	황명숙
봉천구역	이한길	홍익구역	미가우	방배구역	전우걸	오류구역	김영미	장충구역	이남희
삼북구역	이경미	역삼구역	최희욱	역삼구역	최길철	광주구역	안미순	장충구역	이동춘
삼선구역	이영자	수색구역	이미경	여의도구역	김진철	현제구역	박유미	역삼구역	이부성
신천구역	최인표	대치 1 구역	손동선	장충구역	장정자	반포구역	김경례	논현구역	김아원
활학구역	장찬숙	구의구역	변미선	둔촌구역	배동광	중화구역	유홍열	서초구역	배승규
동소문구역	정영자	신당 5 구역	만희경	논현구역	김상윤	논현구역	한덕주	용두구역	이정순
청파구역	박지순	역삼구역	서순철	거여구역	양정녀	역삼구역	이금호	미아구역	김오순
은마구역	박혜치	역삼구역	최원순	하왕십리	장용남	방화구역	정민경	반포구역	신현봉
개나리	나입자	불천 5 구역	이종복	쌍문구역	박년옥	불천구역	한만덕	역삼구역	장희수
논현구역	이상해	서계구역	김학선	신당구역	김운자	화곡구역	채영자	중계구역	김복희
목동구역	한선희	역삼구역	이길자	신천구역	나영득	서초구역	김보미	장충구역	이양순
부천구역	이윤진	논현구역	오규화	전동구역	권오용	삼성구역	여신봉	한남구역	채정자
신당구역	장수진	가락구역	문선희	시흥구역	김광순	논현구역	최재현	역삼구역	이수자
역삼구역	김옥순	역삼구역	김정호	암사구역	김종순	서초구역	김재현	역삼구역	이승룡
역삼구역	송숙자	하왕구역	김정래	둔촌구역	임승애	역삼구역	오우중	역삼구역	한인옥
상도구역	남궁기원	상도구역	김중현	쌍문구역	방영희	역삼구역	백경화		
필동구역	전종순	수송구역	최행래	전동구역	강명희	역삼구역	윤영자		
가락구역	김희선	삼성구역	김선희	논현구역	정두리	갈월구역	정현태		
가평구역	김명숙	면목구역	변숙연	성수구역	저명자	논현구역	김순자		

결 혼

▲서영삼군과 정현영양(정석태장로 최봉숙권사 딸 유치부 교사) 6월 17일 오후 2시

▲민종기군(청년부 회원)과 최금숙양(청년부 회원) 6월 24일 오후 1시

▲김광군(김대훈 나선례집사 아들)과 조매은양 6월 28일 오후 2시

▲정관용군(정동훈집사 이희원권사 아들)과 김정선양 7월 1일 오후 1시

▲전인성군(하광숙권사 아들)과 한선희양 7월 3일 12시

▲유병준군과 노화경양(광장구역 청년부 회원) 7월 3일 오후 2시

▲이승국군(이도일씨 정경자권사 아들)과 이연희양 7월 4

일 12시 30분

▲송영석군과 이해련양(임봉옥집사 딸) 7월 5일 오후 2시

▲유원열군(화곡 4구역 유상철씨 아들)과 정규원양 7월 17일 12시

▲허석군과 조영란양(조종호유정규씨 딸) 8월 9일 오후 1시

▲신철희군과 문영은양(문쾌인집사 전정례권사 딸) 8월 9일 오후 2시

▲박건순군(김정례권사 아들)과 권영희양 8월 12일 12시

별 세

▲박중남씨(구의 5구역) 6월 8일 별세

▲전인숙성도(반포 3구역) 6월 17일 별세

▲유치오성도(도농구역 유근식 송영록씨 부친) 6월 25일 별세

▲박상인씨(염곡구역 강옥자집사 시부) 6월 29일 별세

▲양흥식씨(화곡 2구역 양재영군 부친) 6월 30일 별세

▲홍성희씨(을지 3구역) 6월 30일 별세

▲배관식성도(성남 7구역 배길자 배옥자씨 부친) 7월 2일 별세

▲정금자씨(한남구역) 7월 10일 별세

▲김성명권사(전홍열 강동화집사 모친) 7월 13일 별세

▲김용식집사(둔촌구역 우순성집사 부군) 7월 25일 별세

▲안병설집사(서초구역 김주련권사 부군) 7월 25일 별세

▲김진순씨(장충구역) 7월 27일 별세

처음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부는

-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매주일 3부(10시 30분)에 배후(12시)에 분당 103호실에서 6개월간 공부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 뵈게 될 것을 바랍니다.

충현교회 새신자부



7·8월의 행사



□ 당 회

7월 4 일/6월 정기당회
7월 16~18 일/장로 수양회
8월 1 일/7월 정기당회

□ 제직회

7월 6 일/7월 정기제직회
8월 3 일/8월 정기제직회

□ 예배위원회

7월 20 일/맥추감사예배
8월 31 일/교사 헌신예배

□ 교육위원회

7월 7 일~8월 23 일/13부 주
일학교 여름 계절학교
7월 20 일/새가정부 특강
8월 31 일/대학부 고아원 방문

□ 전도위원회

7월 7 일/70인 전도요원 수료
자 재교육
7월 10~12 일/여전도회 하기 수
련회
8월 3 일/하기전도대 파송식
8월 4 일/1차 하기전도대 파송
8월 18 일/2차 하기전도대 파송
8월 27 일/8·9월 군 입대자 환
송예배
8월 30 일/하기전도대 평가회
□ 북한선교위원회
7월 5 ~ 8 일/육사 기독교신
앙훈련
7월 7 ~ 12 일/제 2차 전도특공

대 지도자 훈련

7월 15~17 일/제 1차 교역자 수
련회
7월 23~25 일/해사기독교신
앙훈련
8월 11~16 일/8·15해방 구국대
성회

□ 출판국

7월 20 일/「사가서 설교집」발행
7월 30 일/「예식과 설교」발행
8월 30 일/「하나님께서서 귀히 쓰
시는 일군」, 「예식과 설교」재판
발행

편 집 후 기

○...7·8월의 한 여름에 많은 일을 치렀다. 주일 학교 여름계절학교, 하기 농어촌전도대 파송, 각종 수련회 및 집회 등.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봉사한 일군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땀흘린만큼 많은 결실이 있기를 기도해 본다.

○...올해도 태풍이 지나갔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거센 비바람 앞에서 인간의 미약함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케 된다.

○...얼마전 T·V에서 미아찾아주기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고있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지금도 부모이상으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 주님의 품을 멀리하고 외딴 곳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가 아닌지?

○...놀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출판국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턱도 높지 않습니다. 걸음마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6년 7·8 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6년	9월	3일	인쇄
1986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조현영
주관	이성	편집장	김차생
편집위원	김원남	조영길	김선근
	김용선	이선경	손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4181 ~ 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 세계 C·E 대회에서
설교하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 군입대자 환송예배시
입대자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 하기 농어촌 전도대
개인 전도 모습



주는 말씀하신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뢰하지 않고

너희는 날 슬기다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원이라 하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는 날 어질다 하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너희를 꾸짖어도 탓하지 말아라

— 독일 리베르 예배당 돌판에서 —